

■ 주요 뉴스: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큰 폭 증가, Broadcom 실적은 AI 버블 우려 다소 완화

- 미국 재무장관,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촉진 추진, 감독 당국의 기조 전환 예고
- 중국 지도부, 내수 확대 강조, 통화 및 재정정책 통한 경기 부양도 시사
- 국제에너지기구(IEA), 내년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규모는 다소 줄어들 전망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속적인 금리인하 효과 기대, AI 버블 논란 등이 영향

주가 상승[+0.2%], 달러화 약세[-0.4%], 금리 상승[+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AI 고평가 부담 속 금리인하 수혜주 강세 등으로 사상 최고치
유로 Stoxx600지수는 연준의 금리인하, 스위스 중앙은행 금리 동결 등으로 0.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전일 금리인하 영향 지속 등으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주가 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을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금리의 장초반 하락 등을 반영하며 1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69.3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71.4원, 0.11% 하락). 한국 CDS 약보합

		12/11일	12/10일	전일대비			12/11일	12/1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901.0	6,886.7	+0.21%	국채 금리 10y	미국	4.16%	4.15%	+1bp
	유럽	581.34	578.17	+0.55%		독일	2.84%	2.85%	-1bp
	중국	3,873.3	3,900.5	-0.70%		영국	4.48%	4.51%	-2bp
	일본	50,149	50,603	-0.90%	CDS 5y	한국	23bp	23bp	-0bp
	한국	4,110.6	4,135.0	-0.59%		중국	44bp	44bp	-0bp
	달러지수	98.35	98.79	-0.44%	위험 지표	EMBI+	-	277	-
환율	유로화	1.1738	1.1695	+0.37%		VIX	14.85	15.77	-5.83%
	엔화	155.59	156.02	+0.28%		WTI유	57.60	58.46	-1.47%
	위안화	7.0571	7.0680	+0.15%	원자재	구리	540.9	527.6	+2.53%
	원화	1,473.0	1,470.4	-0.18%		금	4,280.2	4,228.8	+1.2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큰 폭 증가. Broadcom 실적은 AI 버블 우려 다소 완화

- 12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23.6만건으로 예상치(22.0만건) 및 전주(19.2만건) 대비 크게 늘었고, 증가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다만 고용 관련 지표들은 연말 쇼핑 시즌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으며, 다수의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Santander)
- 9월 무역수지는 528억달러 적자를 기록, 전월(-593억달러) 대비 적자폭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연초 이후 최소. 무역적자는 연초 이후 3월까지 관세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 성격의 수입 급증으로 크게 늘었으나, 이후 대체로 전년(월평균 -752억달러)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 유지
- 9월 도매재고는 전월비 0.5% 늘어 예상치(+0.1%) 상회. 이번 결과는 3/4분기 GDP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 한편, 이날 공개된 Broadcom의 4/4분기(8~10월) 매출과 주당순이익은 180.2억달러, 1.95달러로 모두 예상치(174.9억달러, 1.86달러) 상회. 또한 내년 1/4분기 매출 전망 역시 191억 달러로 제시되어 이전(183억달러) 대비 상향. 이를 반영하여 장 마감 후 주가도 상승(419.1달러, +3.1%)
- 특히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에 따른 맞춤형 칩 판매 수요가 견조하고, 이에 따른 여파로 실적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AI 버블 관련 우려는 일부 완화
- 다만, 전날 발표된 Oracle의 경우 2/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급락(11일 198.9달러, -10.8%)했고, 시장에서는 AI 버블 우려가 증폭. 특히 부채 증가 리스크와 소프트웨어 매출 둔화 관련 불안이 심화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촉진 추진. 감독 당국의 기조 전환 예고

- 베센트 장관은 자신이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의 기조 전환을 권고하겠다는 의견 피력. 구체적으로 규제 장벽 및 감독 완화가 금융 시스템 강화와 경제 성장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10년 설립된 FSOC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를 강조

■ 경제연구소 Ifo, 독일의 저성장 지속 예상. 스위스 중앙은행은 금리 동결

- 경제연구소 Ifo는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당국이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경기 부양을 도모하지만, 이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분석
- 스위스 중앙은행은 금리를 0.0%로 동결한다고 발표. 인플레이션 전망이 약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낮추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

■ 중국 지도부, 내수 확대 강조. 통화 및 재정정책 통한 경기 부양도 시사

- 공산당 지도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소비 촉진을 위한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 또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한 수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기대가 증가. 아울러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 대응 등도 강조
- 한편, 멕시코 의회는 중국, 한국, 태국 등 자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여러 아시아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

■ 일본 정부, 세제 개편 추진. 초부유층 기준 하향기업 투자 혜택 강화 등이 포함

- 정부 여당은 세제를 개편하고 이를 '27년부터 적용할 계획. 구체적으로 초부유층 적용 소득 기준을 낮춰(30억엔→6억엔), 초고소득자를 통한 정부 수입을 늘릴 방침. 다만, 연소득 1억엔 전후의 경우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 강화 방안이 검토

■ 국제에너지기구(IEA), 내년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규모는 다소 줄어든 전망

- 내년 공급과잉 규모를 일일 384만 배럴로 제시했으며, 이는 이전(409만배럴) 대비 낮은 수준. 러시아 및 베네수엘라 제재 등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반면, 경제 전망 개선 등으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12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시카고 및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발언, 독일 11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 파월의 추가 금리인하 신중론, 트럼프와의 갈등을 심화시킬 소지 - 블룸버그

(Powell's last rate cut would send sparks flying)

-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가 향후 지표와 위험의 균형을 살피면서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고, 이는 추가 인하의 기준이 높아졌음을 시사. 목표치 상회한 인플레이션과 최근의 고용 둔화 등을 고려할 경우 파월 의장의 이와 같은 신중한 접근은 합리적
- 그러나 더 과감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은 심화될 소지. 파월 의장의 임기 내에 경기가 악화되면 추가적인 인하가 가능하겠으나, 트럼프가 인내심을 보일 가능성은 적은 편. 이는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 통화정책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변동성 확대도 초래할 우려

■ 차기 연준 의장, 12월 FOMC의 반대표 고려 시 향후 정책합의 난항 예상 - 블룸버그

(‘Silent Dissents’ Reveal Growing Fed Resistance to Powell’s Cuts)

- 12월 FOMC에서 3명의 위원이 금리인하에 반대. 파월 의장은 관련 의미를 일축했으나, 이는 연준 내부의 의견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기에 주목할 필요. 또한 이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지역 연은 총재들도 금리인하 반대 의견을 가졌을 소지
- 일각에서는 재임기간 동안 보여준 파월 의장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3명의 반대 의견에 놀라움을 표명. 이에 새로 선출될 연준 의장에겐 정책합의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 다만, 현재 분열 양상은 노동시장 둔화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 차이가 핵심 이유. 이에 경기상황에 따라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ECB의 정책 기조, 연준의 기조와 상이하지만 유로화 강세 지속 시 전환 가능 - WSI

(ECB Unlikely to Follow Fed For Now, But Currency Moves May Yet Prove Decisive)

- 연준은 금년 세 차례(9,10,12월)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ECB는 6월까지 금리를 7회 연속 인하한 후 통화정책 관련 신중한 자세 견지. 일부에서는 연준의 완화정책에 ECB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ECB는 이미 더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상태. 아울러, 자체 데이터에 기반을 둔 독립적 통화정책 운영을 강조(ECB)
- 하지만,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는 유로화 강세,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목표(2.0%) 달성 실패, 수출 경쟁력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내재. 이에 ECB는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환율 변동성 심화가 발생한다면, 부정적 경제 영향을 피하기 위해 금리인하에 동조할 가능성도 상존

■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 관련 평가에서 일부 균형적 시각도 요구 - The Economist

(Don't fear China's trillion-dollar trade surplus)

- 금년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로 여타국의 對中 무역불균형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증가.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소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 일례로 해당 수치는 서비스 부문이 제외된 것으로, 만일 포함한다면 흑자 규모는 1,800억 달러 감소. 또한 자유무역지대의 다국적 기업 거래도 미반영
- 아울러 좀 더 포괄적 측면에서 여타국과 경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수지도 주목할 필요. 현재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3.4% 수준. IMF에 따르면, 해당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는 45개에 이르며, EU 내에도 8개국 존재
- 다른 한편으로 대규모 수출이 중국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도 발생. 일례로 중국은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무역불균형 등도 주요 원인. 물론 과도한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 내포. 그러나 일부 측면에서는 중국의 무역흑자 관련 보다 균형적인 시각도 필요

■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불확실성 여전하지만 투자자 기대는 지속 - 블룸버그

(Where Does the Fed's Inflation Target Stand Now?)

■ 미국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 확대 계획, R&D 비중 높은 기업에 유리 - 블룸버그

(Trump Administration Plans to Boost Tax Break for Corporations)

■ 미국 모기지 금리, 금리인하 불구 상승세 이어져 주택구매자 부담 가중 - 블룸버그

(US Mortgage Rates Tick Higher, Sending 30-Year Loans to 6.22%)

■ 미국의 생활비 부담 증가, 계층별·지역별 불균형 심화가 문제의 핵심 - 블룸버그

(Affordability isn't a hoax or crisis for m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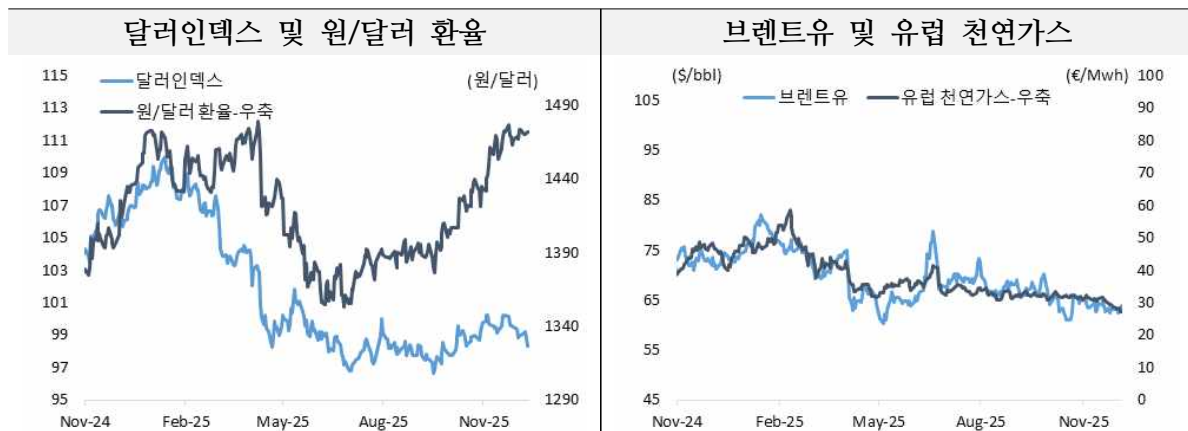
■ 일본 엔화의 위안화 대비 기록적 절하, 수입물가 상승에 인플레이션 위험 심화 - 블룸버그

(Yen's Record Weakness Against Yuan Raises Japan Inflation Risk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